

“코로나 사태 본질 생각해봐야”

김승환 교육감 “아이들 생명·건강·안전 어떻게 지키지 돌아봐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현 상황에서 우리가 목전에 닥쳐 있는 위험상황을 피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등돌이 숙주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인간에게로 넘어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러시아에서 북극곰 인간의 마을로 넘어온 사례를 들며 “이는 더 이상 숙주에만 기대서는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숙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은 누가 만들었는지, 인간이 서식지·생태를 파괴한 것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생명·건강·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마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꼭 먹어야 할 것만 제공하는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아이들 면역력 강화시켜 줘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제다. 아이들 잘 먹고, 잘 재우고, 잘 뛰어놀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종할 것이고 인간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과 공존하는 지혜와 전략을 치밀하게 짜놓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반성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은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군산대, 인증대학 선정 쾌거

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군산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는 기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개편·확대한 것으로,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및 대학 국제화의 모범적 기준 제시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군산대학교는 불법체류유, 중도탈락율, 유학생 언어능력 등 정량지표심사와 대학 국제화 추진실적관련 정성지표 평가, 위원회 심의의 단계를 모두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이달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이다.

인증 취득으로 군산대학교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등 교육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11개 언어로 해당 정보가 해외에 공시되며,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유학생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을 마련, 소속 기관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취급자의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통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추진계획은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개인정보 노출 예방 추진 등 3개 분야에서 9개 과제로 이루어졌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내실화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체계 마련,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제고, 개인정보 처리 실태 현장 점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자체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안내하고 기관별 자체 점검을 통해 과다 운용되거나 불필요한 개인

정보 파일을 파기·보안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된다. 각 기관 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원격 연수 과정이 전북교육연수포털에 개설·운영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한다. 학생은 학교 7대 생활안전 교육 시 폭력 및 신변안전 영역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교사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지원한다.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이나 교육자료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인식부족과 시스템 보안취약 요소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코로나19 성금 모금
원불교 대구교구 등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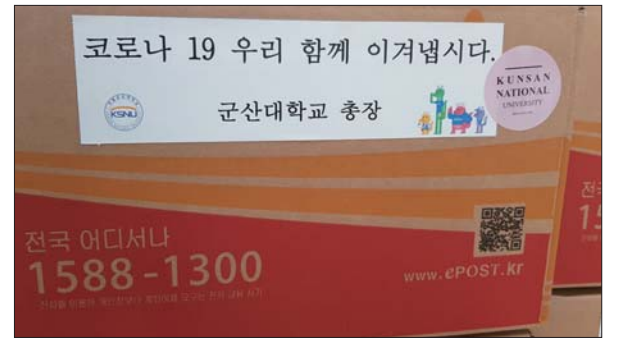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69만원, 원불교 대구교구에 2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원광대 구성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특별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박맹수 총장은 “미력하나마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직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모든 국민을 위협하는 코로나19 확산이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성금 모금에 앞서 대구, 경북지역 교류대학에 격려와 함께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들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공동 극복 의지를 다졌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군산대학교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고생하는 대구·경북지역 재학생들에게 마스크 2000여 장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학생들 안전한 학습환경 지원”

군산대, 대구·경북지역 재학생에 마스크 2000여 장 전달

군산대학교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고생하는 대구·경북지역 재학생들에게 마스크 2000여 장을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산대에 재학 중인 대구 경북지역 출신 학생은 모두 54명으로 군산대학교는 이들이 코로나 재해를 이겨내고 건강한 몸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군산대는 국내 코로나 유행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등교를 앞두고 개별 전화를 통해 증상 유무와 이동 경로, 전북 방문 일정 및 주거 형태를 확인하며 외출 자제를 부탁하고 있으며,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

역 학생들을 위해 1인당 50개의 마스크도 마련하였다.

또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강일을 2일에서 16일로 연기한 데 이어, 개강 후 2주간을 온라인 재택수업으로 대체해 대면 강의 시기를 늦추는 등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곽병선 총장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중에서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움이 큰데, 마스크 수급에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도교육청, 중도입국 학생·외국인 자녀 지원강화

위탁교육기관 2곳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 자녀의 공교육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교육기관 2곳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탁 대상은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가정 자녀 초·중·고등학생으로 위탁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 상담을 통해 위탁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탁기간은 종일 위탁형 2개월, 오후 위탁형 3개월이며 위탁학생의 원격교시간에 맞추어 1교시당 초등 40분, 중

등 45분, 고등 50분 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위탁교육기관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학습 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도 강화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중도입국학생 위탁교육기관은 전주시다문화교육지원센터, 글로벌인재교육원, 다음세대학교(대안학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교육청 내) 등 모두 4곳이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